

# 아동의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hildren's Friendship

이 은 해\*\*  
Rhee, Un Hai

### ABSTRACT

Friendship network characteristics, friendship quality, and popularity status were examined for 298 first and third graders (M age=7 yrs., 3 mo. and 9 yrs., 2 mo.). Children provided friendship nominations and responded to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Rhee & Koh, in press). Results indicated that 3rd graders had larger friendship networks and more supportive friendships than 1st graders, and girls reported more reciprocal friends and more supportive friendships than boys. The best predictor for friendship satisfaction was a reliable alliance. The higher the reciprocity in friendship choice,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friendship functions and satisfaction. Unpopular children were less likely than popular children to have a reciprocal friend, although friendless children were found in both group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출생 초기부터 가족이라는 사회적 관계 안에서 성장하며, 발달단계별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발달적 과제를 이루어 간다. 영유아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애착관계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하나, 아동기에 이르면 부모-자녀 관계에 더해 또래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초점이 모아진다. 아동이 부모와 형성하는 관계는 일차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이나 또래와의

관계는 자발적이고 수평적이다.

또래관계, 특히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의 발달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또래관계가 부여하는 기능이 부모나 성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다. 이는 Sullivan(1953)의 대인관계 이론과 Piaget(1965)에 의해서 강조되었고, 최근 20년간의 경험적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Sullivan은 청소년기 발달에서 친구관계가 필수적이며, 친구관계의 대표적 속성을 친구에 대한 친밀감과 친구의 욕

\* 이 논문은 1998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됨.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구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협용(collaboration)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Piaget는 부모-자녀 관계가 권위와 일방적인 동조성에 의해 기존의 사회규칙을 습득하도록 아동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것과 달리, 또래관계는 상호성(reciprocity)과 동등성에 의해 협동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인 도덕성 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 최근 또래관계의 발달적 의의에 대해 Bukowski와 Hoza(1989)는 세 가지로 정리한바 있다. 첫째, 또래관계는 성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을 훈련시킨다. 둘째, 아동에게 사회적 지원과 안전감을 느끼게 한다. 셋째, 사회관계 내에서 자아를 정의하게 되므로 자아개념 발달에 기여한다. 이러한 주장에 더해서 Hartup과 Stevens(1997)는 친구관계가 일생을 통해 개인의 복지와 적응에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즉 친구는 발달단계에 따라 그 시기에 중요한 발달적 관계를 극복하도록 상호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유치원아의 학교에 대한 태도와 적응에 초기의 친구관계가 영향을 준다는 연구(Ladd & Coleman, 1997;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아동기의 친구관계가 성인기 이후의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Bagwell과 동료들(1998)의 장기 종단적 연구 등 경험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또래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래관계에 관심이 모아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론적 근거 외에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의 변화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 가족 형태의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 그리고 조기 교육 추세에 따라 아동은 과거보다 더 어린 연령부터 조기 유아교육 기관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또래관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따라서 또래관계가 아동의 일상생활 및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래관계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주로 또래들로부터의 수용 또는 배척에 따른 또래지위(peer status)에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또래로부터 수용도가 높고 인기 있는 아동은 거부아에 비해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지도력이 있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는 반면, 거부아들은 대체로 또래에게 공격적이고 학업성취가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Coie, Dodge & Kupersmidt, 1990; 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이 또래지위는 아동의 사회적 발달과 적응을 예언하는 주요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또 다른 유형은 아동이 개별적으로 형성하는 친구관계 또는 우정(friendship)이며, 최근 이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Berndt, 1996; Bukowski & Hoza, 1989; Hartup & Stevens, 1997). 친구관계는 두 명의 특별한 상호선택에 의해 생기는 이원적 관계(dyadic relationship)라는 점에서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선택 또는 배척에 의해 결정되는 또래 집단내의 지위와는 구별된다(Gottman, 1983). Vandell과 Hembree(1994)의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인기아 중에서도 친구관계를 갖지 못한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거부아나 무시아 중에서도 친구관계는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또래지위와 친구관계는 아동이 경험하는 또래관계의 각기 다른 유형으로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Vandell & Hembree, 1994). 일반적으로 또래지위는 아동의 부적응을 더 효과적으로 예언하며,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 증진 등 긍정적 측면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Vandell & Hembree, 1994). 그

리나 이 두 개념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고 구별되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친구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관계에 참여하는 정도와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 이 두가지 요소로 집약될 수 있다(Bukowski & Hoza, 1989; Parker & Asher, 1993). 친구관계에 참여하는 정도는 친구를 갖고 있는가의 유무, 그리고 얼마나 많은 친구와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두명의 이원적 관계에 초점을 두지만 아주 친한 친구(best friends)가 한 명 이상일 수도 있으며(Berndt, 1996), 친구 참여의 효과가 친구유무인지 또는 누적적인지에 대해 아직은 충분한 증거가 부족한 실정이다(Bukowski & Hoza, 1989). 따라서 이원적 관계의 맥락이 되는 더 넓은 친구관계망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George & Hartmann, 1996). 또한 친구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상호적인 선택이 중요시 되며, 선택범위의 엄격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상호성은 Piaget나 Sullivan이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개념적으로 구분한 주요 차원일 뿐 아니라(Youniss, 1980), 최근 Hartup과 Stevens(1997)도 상호성을 친구관계의 심층구조라고 언급하면서 자아가치와 복지의 원천으로 간주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상호적 친구관계가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보다 더 사회적으로 유능하여 더 친절하고 협동적이며, 조망 수용 능력과 자존감이 높았다고 한다(Newcomb & Bagwell, 1996). 우리 나라 연구에서도 친구에 대한 기대의 유사성이 상호적인 친구인가 또는 일방적인 친구인가에 따라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 광경신(1988)은 6세와 9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상호적인 친구쌍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보다 기대가 더 비슷하다고 하였다. 친

구관계의 선택이 이와 같이 일방적인가 또는 상호적인가에 따라 친구관계의 질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친구관계의 참여는 아동이 친하게 느끼는 정도, 선택의 상호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친구관계의 둘째 요소는 친구관계의 질적 측면이다. 즉 친구간에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어떤 기능을 제공하며 아동의 사회·정서적 또는 수단적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는가에 대한 것이다. Sullivan은 친구간에 친밀감과 협용이 높고 경쟁이 낮을 때, 친구관계의 질이 높다고 하였다. 최근 친구관계의 질은 사회적 기능 또는 지원을 연구한 Weiss(1969, 1974)의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Weiss(1969)에 의하면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기능이 각기 다르며, 주요 기능에는 애착, 신뢰, 사회적 상호작용, 인정, 도움, 양육의 여섯 가지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Weiss(1974)의 이론은 성인의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므로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질을 논의할 때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대인관계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회적 자원(social provision)이란 기능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Berndt(1996)의 고찰에 따르면, 과거의 연구들이 친구관계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였으나 친구관계의 동등성(equality)이나 경쟁 등은 간과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친구관계의 양상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친구관계의 질을 보는 관점은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구관계의 질은 긍정적 지원 기능뿐만 아니라 갈등, 경쟁, 배신 등 부정적 속성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은 대상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Furman & Buhrmester, 1985; Mendelson & Aboud, 인쇄 중). 셋째, 친구관계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

한 하위분류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친밀감, 신뢰, 정서적 안정, 사회적 상호작용, 도움, 자기인정, 갈등, 경쟁 등을 포함한다(Furman, 1996; Mendelson & Aboud, 인쇄중).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 연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 단계라고 지적한다(Furman, 1996). 더구나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용될 때는 대체로 번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아동의 친구관계 질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에게 적합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친구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초등학교 3,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친구관계의 질 척도'(이은혜·고윤주, 인쇄중a)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교제의 즐거움), 부정적 측면(갈등, 경쟁), 친구에 대한 만족감, 총 9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다.

친구관계의 질에서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와 성차가 지적되고 있다. Sullivan(1953)은 아동기 중반 이후 단짝 친구관계가 발달하여 친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을 개관한 Berndt(1989)는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친구관계의 질에 관한 발달적 연구는 아동기 중반 이후부터 청소년기에 집중되어 있고, 친구관계의 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접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친구관계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제한되어 있다.

친구관계의 질에서 성차는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Berndt(1986)에 의하면,

유치원, 3학년,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여아들이 남아보다 친구관계에서의 질이 대체로 높다고 하였다. Parker와 Asher(1993)의 연구에서도 3~5학년 여아가 남아보다 도움과 충고, 인정과 보살핌, 친밀감, 갈등 해결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관계를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3,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Parker와 Asher의 도구를 사용한 윤미경(1998)은 친밀감 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은혜와 고윤주(인쇄중a)의 3, 5학년 자료에서도 여아의 친구관계 질은 긍정적 지원 기능과 만족감에서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친구관계에 대한 최근의 개념을 적용한 발달적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회환경적 변인들의 영향도 있으므로 외국의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연구들은 또래 지위나 또래 수용도에 관련시킨 연구들(예; 도현심, 1996; 임연진·이은혜, 1994; 최용주·이재연, 1993)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친구관계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윤진, 1984; 이윤옥, 1991), 우정의 개념 발달(이주옥, 1985) 등이 있을뿐 경험적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의 친구관계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친구관계 자체에 대한 충분한 기술적 자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의 참여와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이 두 친구관계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1학년과 3학년으로 선정한 것은 1학년이 초등학교로의 진입에 따라 친구관계망에서 변화를 겪는 발달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으며(Ladd & Price, 1987), 특히 7세는 친구관계에 대한 개념에서 상호성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Selman, 1980) 의의가 있다. 따라서 단짝 친구가 생기는 3학년과 비교함으로써 친구관계 형성의 발달적 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의 개념에 기초한 친구관계의 질을 자기보고식 응답 가능성 면에서 낮은 연령수준인 1학년 아동에게 시도해 보는 것에도 부수적인 의미를 둘 수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아동의 친구관계 변인들과 집단 내 또래 수용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집단내 또래 수용도가 이원적 관계인 친구관계와 개념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Bukowski & Hoza, 1989; 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그러나 이에 관련된 경험적 연구들은 또래 수용도와 친구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며, 각각이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아직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또래 수용도는 아동의 부적응을 예언한다고는 하나 어떤 또래관계인가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또래 집단에서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의 경우 부적응의 위험이 높으나 이러한 아동일지라도 가까운 친구를 가지고 있으면,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Parker & Asher, 1993; Vandell & Hembree, 1994). 또한 자아개념의 증진이나 도덕성 발달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는 또래 수용보다 친구관계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Bukowski & Hoza, 1989). 국내에서 또래 수용도와 친구관계를 동시에 다룬 경험적 연구(신유림, 1997; 윤미경, 1998)는 극히 최근에 소수가 발견될 뿐이다. 따라서 아동

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또래 집단에 근거를 둔 또래수용도와 이원적 관계에 기초한 친구관계를 함께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 수용도와 친구관계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저학년 아동의 또래관계 양상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중재 노력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연구문제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연구 문제를 제기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의 친구관계 참여에서 아동이 형성한 친구관계망의 구성, 크기, 유형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친구관계망의 특성은 학년과 성에 따라 다른가?
2.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해 아동이 느끼는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긍정적 기능, 부정적 측면, 만족감)은 어떠한가? 친구관계의 질적 특성은 학년과 성에 따라 다른가?
3. 친구관계망 특성과 친구관계의 질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학년에 따라 관계의 패턴이 다른가?
4. 아동의 또래집단에서의 수용도는 친구관계의 특성(친구관계망과 친구관계의 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학년에 따라 관계의 패턴이 다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1개 초등학교의 1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4학급씩을 무선 표집하고 8개 학급에 속한 남녀 아동을 모두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시기에 결석한 아동과 자료의 누락이 생긴 아동을 제외한 후 총 298명이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의 학년과 성별 분포 및 평균 연령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학년과 성별 분포

학년	성	평균연령(세.개월)	아동수	계
1학년	남	7:3	80	148
	여	7:3	68	
3학년	남	9:2	75	150
	여	9:2	75	

대상 아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련된 자료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무직(42%)과 판매직(18%)이 전체의 60%를 이루고 전문직(13%), 행정 및 관리직(11%), 서비스직(1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순노무직과 생산직, 무직이 6% 정도를 이루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중류계층의 프로파일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도구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친구관계망을 조사하는 부분과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친구관계망의 조사는 학급별 동성의 아동 명단을 제시하고 수 제한 없이 친구를 선택하게 했는데, 친한 정도에 따라 '친구',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친구관계망의 확산성을 고려하여 학급명단에 있지 않은 친구도 추가 포함시킬 수 있

도록 여백을 제공하였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Furman & Buhrmester, 1985; Mendelson & Aboud, 인쇄중)와 2차의 예비조사를 거쳐 개발된 이은혜와 고윤주(인쇄중a)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은 친구의 긍정적 기능을 알아보는 6개 영역, 부정적 측면 2개 영역, 그리고 친구관계에서의 만족감 영역, 총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로 4문항씩 36문항으로 되어 있다.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은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정서적 안정',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믿는 '신뢰', 실제적으로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도움', 비밀을 나누고 친구의 상태를 민감하게 아는 '친밀감', 칭찬과 격려 등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신시켜 주는 '인정', 친구와 함께 하는 것에서의 즐거움인 '교제의 즐거움'으로 구분된다. 부정적 측면은 친구와 다투거나 의견 충돌에 대한 '갈등', 친구와의 비교에 근거하는 '경쟁'으로 구성된다. 친구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친구

에 대한 애정과 전반적인 만족을 의미한다.

본 척도는 아동에게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많이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아주 조금 그렇다"(1점)의 4점 척도로 나누고 동의 정도에 따라 크기가 다른 4개의 원중에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Cronbach  $\alpha$ 는 본 연구대상에게 적용했을 때 하위영역별로 .65~.85였으나 대체로 .70수준 이상이었고, 긍정적 기능 전체에 대한  $\alpha$ 는 .93(1학년)과 .92(3학년)로 높게 나타났다.

### 3. 연구의 절차 및 분석

본 조사는 1998년 11월 6일~27일 기간에 이

루어졌으며, 훈련된 조사자에 의해 3학년은 각 학급에서 집단으로 실시되고, 1학년은 2~6명의 소집단을 구성해 실시하였다. 실시과정에서 친구 관계에 대한 응답은 비밀로 할 것임을 주지시켰으며 1학년에게는 조사자가 문항을 읽어 주고 이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실시하였다. 친구관계망 부분과 친구관계의 질 모두를 응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5분~30분 정도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과 아버지의 직업에 관한 자료는 담임교사의 협조로 학교 기록을 통해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version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고, 기술적인 자료로 평균과 표준편차, 학년과 성차를 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 및  $\chi^2$  검증, 그리고 변인간의 관련성은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및 해석

### 1. 아동의 친구관계망

아동의 친구관계망은 아동이 학급 내, 외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와 상호선택한 친구관계에 대해 조사되었다. 먼저 아동이 학급의 동성 아동 명단에서 친한 정도(보통, 친한, 아주 친한)에 따라 친구를 선택하고, 명단 외의 친구는 추가하도록 하였다. 학급명단 내외의 친구수에 대해 성과 학년에 따라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차의 검증을 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는 친구 범주 별로 각각 평균 3~5명 정도였으며 친구 범주에 따라 특징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전체 친구수의 평균을 보면, 남아 11.2명, 여아 10.2명으로 성차가 유의했으며, 학

년에 따라서는 1학년 8.9명, 3학년 12.5명으로 학년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여아보다 남아의 친구수가, 1학년 보다 3학년의 친구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편차를 보면 대체로 평균에 비해 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친구선택의 개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의 자료는 학급내외의 모든 친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학급내 친구와 명단 외 친구를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명단외로 추가된 전체 친구수의 평균은 남아의 경우 2.3, 여아의 경우 2.2였고, 1학년은 2.0, 3학년은 2.4이었다. 따라서 학급 외의 친구수는 대체로 2명 정도이며, 학급내의 친구가 7~10명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명단외에 추가된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가를

〈표 2〉 아동이 선택한 친구수에서 성별, 학년별 평균과 차의 검증

친구유형 및 범주		성 별			학년별		
		남 (n=154)	여 (n=143)	F	1학년 (n=147)	3학년 (n=150)	F
일방선택/ 친구	M	4.4	3.9	1.78	3.3	4.9	12.87***
	(SD)	(4.5)	(3.3)		(3.1)	(4.5)	
친한 친구	M	3.1	3.1	.03	2.9	3.2	1.50
	(SD)	(2.4)	(2.3)		(2.4)	(2.3)	
아주 친한 친구	M	3.8	3.2	3.71	2.7	4.3	30.45***
	(SD)	(3.2)	(2.2)		(2.4)	(2.8)	
전 체	M	11.2	10.2	4.56*	8.9	12.5	46.33***
	(SD)	(5.5)	(4.2)		(4.2)	(5.0)	
상호선택 친구	M	5.5	5.4	.37	4.6	6.4	24.30***
	(SD)	(3.7)	(3.0)		(2.7)	(3.7)	

\* p&lt; .05 \*\*\* p&lt; .001

조사했을 때, 대체로 같은 학교내 다른 반의 아동인 경우가 40.5%(1학년), 47.8%(3학년)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같은 동네 친구가 31.7%(1학년), 26.8%(3학년)였고, 학원 친구나 가족끼리 아는 친구가 27.7%(1학년), 25.2%(3학년)를 구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친구관계망이 대체로 같은 학급, 같은 학교, 그리고 한 동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친구관계의 상호성 측면은 두 가지 자료가 분석되었다. 첫째, 상호선택 친구수로서 학급 명단에서 친한 정도에 관계없이 아동간 서로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표 2>의 하단에 상호선택한 친구수에 대한 성별, 학년별 평균과 차의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평균 5, 6명의 상호선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학년 차이가 유의하여 3학년의 상호선택된 친구수 평균이 1학년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구간의 상호성에 관한 두번째 자료는 아동이 기록한 가장 친한 1명 선택에서의 상호 동등성 및 유사성이다. 즉, 한 아동(A)이 다른 아동(B)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기록했을 때, 그 아동(B)은 첫 번째 아동(A)에게 어떻게 반응했는가

〈표 3〉 아동이 선택한 가장 친한 친구의 선택 반응 빈도(%)

친구의 선택 반응	성 별		학년 별	
	남	여	1학년	3학년
가장 친한 친구	30 (24.4)	52 (45.6)	44 (34.6)	38 (34.5)
아주 친한 친구	27 (22.0)	25 (21.9)	19 (15.0)	33 (30.0)
친한 친구	24 (19.5)	8 (7.0)	23 (18.1)	9 (8.2)
친구	21 (17.1)	12 (10.5)	17 (13.4)	16 (14.5)
친구 아님 / 명단외	21 (17.1)	17 (14.9)	24 (18.9)	14 (12.7)
계	123 (100.1)	114 (99.9)	127 (100.0)	110 (99.9)



하는 것이다. 이 자료를 성별, 학년별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성별에 따른 친구선택의 반응을 살펴보면, 서로 '가장 친한' 친구로 동일하게 선택한 정도는 남아의 24%, 여아의 46%였고, 그 다음 유사한 선택인 '아주 친한' 친구로 선택한 정도는 각각 22%였다. 즉 여아의 68%가 유사한 선택을 함으로써 남아의 46%에 비해 상호적 선택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선택한 친구로부터 전혀 선택을 못받거나 보통 친구로 지명된 비율에서 남아(34%)가 여아(25%) 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성별 차이에 대한  $\chi^2$  검증 결과,  $\chi^2 = 16.54$  ( $p < .01$ )로서 유의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도  $\chi^2 = 11.84$  ( $p < .05$ )로서 유의하였는데, '가장 친한' 친구로 동등하게 선택한 경우는 1학년과 3학년에서 모두 35%였으나 그 다음 유사한 반응인 '아주 친한' 친구로 반응한 경우는 3학년이 30%로서 1학년의 15%보다 높았다. 반면 상호선택의 유사성이 낮은 반응에서는 1학년의 비율이 3학년보다 높았다.

## 2. 친구관계의 질

친구관계의 질에 대한 결과는 아동이 기록한 가장 친한 친구 1명에 대한 지각을 1~4로 평정한 자료로서 긍정적 기능 6가지 영역, 부정적 측면 2가지, 그리고 친한 친구에 대한 만족감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학년의 자료중에서 교제의 즐거움과 만족감 영역은 내적합치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과를 학년별로 구분하고, 성별 문항 평정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차의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1학년의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를 보면, 친구의 긍정적 지원 기능 중 신뢰 영역이 4점 척도에서 3.56으로 높은 편이고, 부정적 기능인 갈등과 경쟁의 평균은 낮았다. 성차는 도움, 친밀감, 인정 영역에서 유의하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이 세 영역에서의 지원을 높게 지각하였다. 3학년에서는 친구의 긍정적 기능 중에서 교제의 즐거움과 신뢰의 평균, 그리고 만족감의 평균 점수가 높은 편이고, 갈등과 경쟁 영역의 점

<표 4> 친구관계의 질 하위영역에 따른 점수 평균(표준편차)과 차의 검증

친구관계의 질 하위 영역	1학년			3학년		
	남	여	F	남	여	F
기능/ 정서적 안정	2.76 (1.09)	3.03 (.97)	2.54	2.76 (.94)	3.21 (.78)	10.35**
신뢰	3.56 (.64)	3.56 (.65)	.01	3.48 (.71)	3.71 (.46)	5.47*
도움	2.69 (.98)	3.01 (.93)	3.94*	2.93 (.77)	3.19 (.70)	4.70*
친밀감	2.46 (1.03)	2.79 (.99)	3.85*	2.54 (.87)	3.03 (.86)	11.94***
인정	2.42 (1.02)	2.78 (.98)	4.77*	2.62 (.85)	2.98 (.81)	6.99**
교제의 즐거움	-	-	-	3.67 (.52)	3.70 (.42)	1.52
기능 전체	2.92 (.72)	3.13 (.68)	3.28	3.00 (.61)	3.31 (.50)	11.25***
갈등	1.57 (.69)	1.51 (.51)	.33	1.64 (.64)	1.45 (.45)	1.34*
경쟁	2.02 (1.01)	1.96 (.93)	.16	2.02 (.99)	1.64 (.76)	7.21**
만족감	-	-	-	3.50 (.67)	3.70 (.47)	4.50*

\*  $p < .05$  \*\*  $p < .01$  \*\*\*  $p < .001$

수가 낮았다. 성차가 교제의 즐거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하였다.

한편, 친구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욕구 충족면에서 친구관계의 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차원이므로 이 차원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친구관계 질의 하위 영역을 탐색하고자 만족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3학년만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곳에서는 아동의 성을 1단계에서 넣어 위계적 분석을 하였으나 성의 기여도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친구관계의 질에서 6가지 긍정적 기능과 2가지 부정적 측면만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6가지 긍정적 기능 중에서 신뢰( $\beta = .35$ ), 교제의 즐거움( $\beta = .31$ ), 도움( $\beta = .20$ )이 유의하게 친구관계의 만족감에 기여하는 정적 변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측면에서는 갈등( $\beta = -.17$ )이 유의한 부적 변인으로 발견되었다. 이 네 개 변인의 만족감에 대한  $R^2 = .58(p < .001)$ 로서 설명 변량이 58%였다. 한편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 경쟁은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신뢰

가 높고, 서로 공유하는 활동에서 즐거움이 많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그리고 갈등이 적다고 느낄수록,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 3. 친구관계망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아동의 친구관계망을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와 상호적인 선택에 따른 수 및 상호선택의 유사성으로 나누고, 이들 변인과 친구관계의 질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여기서 상호선택의 유사성은 동일하게 가장 친한 친구로 서로 선택한 경우 5점, 그 다음 유사한 정도에 따라 4, 3, 2, 1로 점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5>에 이들 변인간의 적률상관계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면, 1학년과 3학년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와 친구관계 질의 관계에서 1학년은 관계성이 여러 하위영역에서 나타나지만, 3학년은 관련성이 거의 없고 다만 '교

<표 5> 친구관계망과 친구관계 질의 관계

친구관계의 질 하위 영역	일방선택 친구수		상호선택한 친구수		상호선택의 유사성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기능/ 정서적 안정	.22**	.09	.27**	.17*	.23**	.21*
신뢰	.18*	.13	.14	.17	.06	.39**
도움	.18*	.14	.18*	.14	.14	.23*
친밀감	.13	-.06	.14	-.03	.21*	.16
인정	.20*	.17	.18*	.17*	.15	.16
교제의 즐거움	-	.25**	-	.18*	-	.19*
기능 전체	.23**	.14	.23**	.17*	.22*	.28**
갈등	-.20*	.02	-.14	-.07	-.04	-.17
경쟁	-.08	.06	-.13	.01	-.11	-.14
만족감	-	.08	-	.13	-	.27**

\*  $p < .05$  \*\*  $p < .01$

제의 즐거움'에서만 유의한 정적 상관( $r = .25, p < .01$ )을 나타내고 있다. 즉 1학년 아동의 경우 선택한 친구수가 많을수록 가장 친한 친구가 제공하는 긍정적 지원은 높다고 느끼며 갈등은 낮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3학년은 친구수가 많을수록 가까운 친구와 함께 활동하는데서 오는 즐거움을 높게 지각하였다.

그 다음 친구관계의 두 가지 상호성 측정과 친구관계 질간의 관계는 1학년과 3학년간 공통된 특성과 차이점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공통점은 친구관계의 상호성은 친구관계의 긍정적 기능 전체와 유의한 정적 관계가 있으며, 갈등이나 경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즉, 상호선택한 친구가 많고 가장 친한 친구로 선택한 친구가 비슷하게 반응할수록, 가장 친한 친구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이점은 친구관계 질의 하위영역과 만족감에서 나타났는데 대체로 3학년의 상관계수가 관련 영역이나 유의

도에서 더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요약해보면, 1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은 일반적으로 선택한 친구수하고 관련성이 높으나 3학년은 친구관계의 상호선택 유사성과 더 관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3학년의 경우 1학년과 달리 상호선택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신뢰( $r = .39, p < .01$ ), 교제의 즐거움( $r = .19, p < .05$ ), 만족감( $r = .27, p < .01$ )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친구선택의 상호성과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또 다른 접근으로 대상 아동이 선택한 가장 친한 친구를 피선택 아동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 처음 선택한 아동이 지각하는 친구관계의 질을 비교하였다. 여기서는 긍정적 기능 전체의 평균을 사용해서 학년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내고 F검증을 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친구선택 반응별 친구의 긍정적 기능 전체 평균과 F 검증

친구의 선택 반응	1학년			3학년		
	n	M(SD)	F	n	M(SD)	F
가장 친한 친구	44	3.22 (.62) <sup>a</sup>	4.22**	38	3.28 (.54) <sup>a</sup>	3.80*
아주 친한 친구	19	3.25 (.55)		33	3.09 (.47)	
친한 / 보통 친구	40	2.75 (.75) <sup>b</sup>		25	2.96 (.58)	
친구 아님 / 명단 외	24	3.00 (.71)		14	2.73 (.70) <sup>b</sup>	

\*  $p < .05$ , \*\*  $p < .01$ , Scheffé 검증: a와 b간  $p < .05$

<표 6>에 의하면, 아동들이 가장 친한 친구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택된 아동의 반응에 따라 친구의 긍정적 기능 평균 점수에서 차이가 있고, F검증 결과 1학년과 3학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학년에서의 평균 차이가 친구의 반응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모습을 보이

며, Scheffé 검증 결과 '가장 친한 친구'로 반응한 집단과 '친구 아님/ 명단 외'로 반응한 집단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친구관계 선택에서 상호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긍정적 지원 기능을 높게 지각하며, 이러한 경향은 1학년 보다 3학년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다.

#### 4. 친구관계 특성과 또래 수용도

친구관계 특성과 또래 수용도 간의 관계를 제시하기 전에 또래 수용도 집단 구분 방법과 분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또래 수용도는 학급내 동성의 급우들로부터 '아주 친한 친구'로 선택받은 수에 기초하여 z-점수로 변환시켜 적용하였다. 변환된 z-점수에 따라 아동을 인기 집단( $z > 1.0$ ), 보통 집단( $-1.0 < z < 1.0$ ), 비인기 집단( $z < -1.0$ )

으로 나누었다. 세 집단별 아동 분포를 보면, 학년별로 거의 차이 없이 인기 집단이 16%, 보통 집단이 71%, 비인기 집단 13%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 또래 수용도에 따라 분류된 세 집단 각각의 상호적 친구 유무를 조사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상호적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상 아동이 기록한 1명의 '가장 친한 친구'가 대상 아동을 마찬가지로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명한 경우이다.

<표 7> 또래 수용도 집단에 따른 상호적 친구관계 유무

또래 수용도	1학년		3학년	
	친구 없음	친구 있음	친구 없음	친구 있음
인기	6 ( 7.2)	15 ( 34.1)	8 (11.1)	12 ( 31.6)
보통	62 ( 74.7)	28 ( 63.6)	50 (69.4)	24 ( 63.2)
비인기	15 ( 18.1)	1 ( 2.3)	14 (19.4)	2 ( 5.3)
계	83 (100.0)	44 (100.0)	72 (99.9)	38 (100.1)

<표 7>에서 보면, 1학년 전체 아동 중 44명, 3학년 아동의 38명이 상호적 친구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이는 35%에 해당된다. 또래 수용도 집단에 따른 분포를 보면, 인기아 집단 아동은 친구를 가진 비율이 34%(1학년)와 32%(3학년)로서 친구 없는 비율, 7%(1학년)와 11%(3학년)보다 각각 높았다. 반면 비인기 집단에서는 친구관계를 갖지 못한 비율이 학년별로 18%와 19%로 친구를 가진 비율, 2%와 5%보다 각각 높았다. 학년별  $\chi^2$  검증에서 1학년은  $\chi^2=18.74(p < .001)$ , 3학년은  $\chi^2=9.32(p < .01)$ 로서 모두 유의하였다. 따라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수용 받는 아동이 더 많이 단짝 친구를 갖고, 집단에서 덜 수용되는 아동은 단짝 친구를 갖기 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인기아 중에서도 상호적 친구가 없을 수 있으며, 비인기아도 친구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 또래 수용도의 z-점수를 사용하여 친구관계 특성들과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또래 수용도 집단간 사례수에 차이가 커서 F검증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학년별로 산출한 상관계수가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에서 1, 3학년의 공통된 특징은 친구관계의 상호성과 또래 수용도 간에 .38~.42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상호선택한 친구수가 많고 친구선택에서 상호유사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 집단으로 수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표 7>의 결과를 다른 측면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에서는 상호성의 친구관계 특성과 또래 수용도 간에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학년에서는 일방적 친구선택수( $r = .23, p < .01$ ), 친구의 긍정적 기능 전

〈표 8〉 친구관계 특성과 또래 수용도 간의 관계

친구관계 특성	1학년	3학년
	(N=118)	(N=150)
<u>친구관계망</u>		
일방적 선택 친구수	.12	.23**
상호선택 친구수	.40***	.38***
상호선택의 유사성	.42***	.40***
<u>친구관계의 질</u>		
기능/ 정서적 안정	-.04	.15
신뢰	-.05	.25**
도움	.01	.17
친밀감	-.10	.01
인정	-.02	.18*
교제의 즐거움	-	.20*
기능 전체	-.05	.19*
갈등	-.12	-.15
경쟁	.02	.01
만족감	-	.19*

\*  $p < .05$ , \*\*  $p < .01$ , \*\*\*  $p < .001$

체( $r = .19, p < .05$ ), 신뢰( $r = .25, p < .01$ ), 그리고 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만족감( $r = .19, p < .05$ ) 등에서 또래 수용도와 유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7세)과 3학년(9세) 아동 298명을 대상으로 친구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발달적 차이를 기술하고, 친구관계 특성과 집단내 또래 수용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문제에 따라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친구관계 참여는 친구관계망을 통해 학급내외의 친구 분포, 일방적 선택과 상호적 선택 등에 따라 분석하였다. 아동이 친한 정도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전체 친구수

의 평균은 1학년에서 8.9명, 3학년에서는 12.5명이었고, 상호선택한 친구수는 1학년에서 4.6명, 3학년에서 6.4명이었다. 이는 조사대상과 방법이 다르나 George와 Hartmann(1996)이 5, 6학년 아동의 결과에서 일방적 친구수 11.86명, 상호적 친구수 3.15명으로 보고된 것 보다 약간 큰 것이다. 또한 Feiring과 Lewis(1989)가 보고한 9세 아동의 친구관계망 크기, 9~10명 보다도 약간 크다. 한편 상호적 친구관계 형성에서 가장 친한 친구 1명의 선택이 동일한 경우는 본 연구에서

35%로 발견되었다. 우리 나라 연구로 윤미경(1998)은 3,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가 3명 중의 하나일 때 55%의 아동이 상호적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친구관계망의 일방적 선택과 상호적 선택의 수는 선택의 범위, 상호성의 결정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크기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다만 상호선택이 일방적 선택보다 작고 상호선택에서 일부만이 동등하게 선택한다는 점에서 친구관계에 속한 두명간의 지각이 다른 현상 즉, 비대칭성(asymmetry)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Berndt, 1996).

본 연구 결과에서 가장 분명한 점은 기대한 대로 1학년과 3학년 간의 차이이다. 3학년은 1학년보다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와 상호선택한 친구수가 많았고, 상호선택의 유사성도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3학년의 친구관계 참여가 여러 측면에서 1학년 보다 의미 있게 활발한 것은 무엇보다도 1학년 아동의 전환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학년 아동의 친구관계는 친구에 대한 탐색과 형성 초기의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상호성의 부족은 사회적 조망 능력의 부족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Hartup, 1989). 반면 3학년의 결과는 6세에서 9세에 또래 접촉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Feiring과 Lewis(1989)의 지적과 Sullivan의 주장처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아동과 친구를 이룬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친구의 상호선택에서 성차가 유의했는데, 여아들이 남아보다 상호선택의 동등성과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장 친한 친구로 지목한 아동이 대상 아동을 가장 친한 친구로 또는 아주 친한 친구로 선택하는 여아의 비율(68%)이 남아(46%)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광경신

(1988)의 결과에서도 나타났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상호지각의 유사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는 여아들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더 높고 언어를 통한 표현 능력의 차이 등과 관련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친구관계망의 구성을 보면 학급 내의 친구가 7명~10명으로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 학급외 친구의 절반은 같은 학교내의 다른 반 아동이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친구관계가 학급이라는 사회적·교육적 단위 내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으며 같은 학교나 한 동네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근접성(proximity)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을 분석한 결과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친구관계 질의 주요 하위 영역을 찾아본다면, 중다회귀분석 결과와 하위영역별 평균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 중다회귀분석에서 친구관계 만족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이 신뢰, 교제의 즐거움, 도움, 갈등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에서는 신뢰 영역의 평균이 1학년과 3학년 공통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친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믿는 신뢰감이라고 잠정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아동은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과 재미가 많고 실제적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며, 갈등이 적을수록 친구관계를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Sullivan(1953)을 비롯하여 Berndt(1989) 등이 친구관계에서 친밀감을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 간주하던 것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관한 해석은 몇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대상이 7세와 9세로서 친밀감이 형성되기에는 이른 단계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최근 신-Sullivan 모델을 제시한

Buhrmester와 Furman(1986)에 의하면 친밀감은 청소년 초기(9세~12세)에 급속히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해석은 아동 및 청소년 친구관계의 특징적 현상으로 '신뢰'가 중요한 것일지 모른다는 가설이다. 이를 지지할만한 증거가 Mendelson과 Aboud(인쇄중)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우리 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은혜·고윤주, 인쇄중)에서도 신뢰가 친구에 대한 만족을 가장 잘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달단계가 다르므로 이 가설은 앞으로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친구관계의 질에서 성차를 살펴보면, 1학년은 긍정적 기능인 도움, 친밀감, 인정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3학년 아동은 교제의 즐거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여아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여아들이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원 기능과 만족감을 높게 지각하고, 갈등과 경쟁은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의 특성을 연구한 여러 선행연구(Berndt, 1986; Buhrmester & Furman, 1987; Parker & Asher, 1993; Mendelson & Aboud, 인쇄중)들과 일관된 것이다. 성차에 대한 해석으로 앞서서도 설명한바 전통적으로 여성이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된다는 점(Gilligan, 1977)과 함께 아동기 여아들의 성숙 속도가 대체로 남아보다 빠른 것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남아들의 놀이 유형이나 집단 구조가 여아보다 큰 집단을 이루고 위계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여아들이 더 대인관계에서 친밀하다는 제안(Maccoby, 1990)도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경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친구관계의 질에서 학년 차이는 직접 검증되지 않았으나 이은혜와 고윤주(인쇄중)의 연구를 참조하면, 친구관계 질 척도의 학년별 요인분석과 Cronbach  $\alpha$  산출과정에서 차이점이 나타났

다. 즉 3학년에 비해 1학년 아동의 친구관계 기능은 요인수가 축소되어 덜 분화된 특성을 나타냈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 영역에서는 개념 형성이 덜 이루어진 것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은 1학년에 적합한 측정 도구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지만 측정도구가 다를 때 학년차를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므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도구의 문제이기보다 친구관계의 질을 경험하는 아동의 발달적 차이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긍정적 기능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을 때는 1학년은 긍정적 기능 전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앞으로 이 문제도 후속 연구에서 다시 확인하고 대안적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망 특성과 친구관계의 질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1학년 아동은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가 친구의 긍정적 기능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갈등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즉 아동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친구수가 많을수록 가장 친한 친구의 긍정적 지원을 높게, 갈등을 적게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폭넓은 친구관계가 대인관계의 맥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어 이원적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인 친구수가 이원적 관계인 친구관계의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Hobfoll & Stokes, 1988).

친구관계의 상호성을 상호선택한 친구수와 선택의 유사성으로 구분하고 친구관계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호성은 친구관계의 긍정적 지원 기능 전체와 두 학년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17~.28)을 나타냈으며, 3학년은 친구관계의 만족감이 상호선택의 유사성과 유의한 관계( $r = .27, p < .01$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

호적인 친구관계가 많고 상호 동등하게 선택할 수록 친한 친구가 제공하는 사회정서적 또는 도구적 지원이 많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3학년은 친구관계가 일방적 선택이기보다 상호적인 경우에 친구관계의 질과 만족감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발달적 차이를 나타낸다. 3학년은 발달적으로 단짝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Sullivan, 1953) 상호성은 친구관계의 심층 구조를 반영한다는 Hartup과 Stevens(1997)의 견해에 비추어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친구관계와 또래 수용도의 관계를 보면, 또래 수용도가 높은 집단에서 상호적 친구를 가진 비율이 높았고 또래 수용도가 낮은 집단에서는 상호적 친구를 갖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또래 수용도가 높은 아동 중에서도 상호적 친구를 갖지 않은 아동이 있었고, 또래 수용도가 낮은 아동도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eorge와 Hartmann(1996), Vandell과 Hembree(1994), 신유림(1997), 윤미경(1998) 등의 결과와 일관된 경향이다. 상관분석에서도 1학년과 3학년 모두 또래 수용 정도는 상호선택 친구수 및 상호선택의 유사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특성이 집단내의 또래 수용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호적으로 선택한 친구가 많고, 친구 선택에서 유사성이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선호되는 것은 두명간의 신뢰에 기초한 상호적인 관계 형성이 긍정적 지원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또래 집단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그렇지 못한 아동보다 사회적 기술이 더 많으며(Howes, 1983), 사회적 조망 능력이 더 높다는 점(Hartup, 1989)에서도 또래로부터 더 많이 수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래 수용도는 친구관계의 질과 관련해서 3학년에서만 부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은 또래 수용도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친구관계의 질이 3학년에서는 보다 높은 변별력을 가지나 1학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과 경쟁은 긍정적 기능만큼 또래 집단내 수용도와 관련성이 적었는데, 부정적 영역에 관한 아동의 평정 점수가 낮은 것과 함께 가장 친한 친구에 대한 부정적 측면은 그 빈도나 원천이 보다 다양하다는 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갈등은 일반적으로 만족스런 친구관계에서 낮은 편이나, 접촉이 많은 친한 친구관계에서 더욱 빈번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증거가 보고되기도 하였다(Hartup, French, Laursen, Johnston, & Ogawa, 1993). 따라서 갈등이나 경쟁의 복합적인 특성이 또래 수용도 및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리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친구관계를 충분히 기술하기에는 대상표집이 제한되어 있고, 친구관계의 질을 1학년 아동에게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동의 친구관계 양상을 또래관계 맥락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친구관계 양상과 또래 경험이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어떻게 연관되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아동이 일방적으로 선택한 학급내 동성 친구수는 평균 7~10명, 학급외 친구는 2명이었고, 상호선택한 친구수는 4~6명이었다.

2. 친구관계망의 크기와 친구관계의 질은 학년과 성에 따라 다르다. 즉, 3학년이 1학년 보다



더 광범위하고 높은 질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선 택에서 상호성과 친구 관계의 질이 높다.

3. 친구선택과 지각에서의 상호성은 친구관계의 핵심적 요소이며, 상호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친구관계에서의 긍정적 지원 기능을 높게 지각하고 관계에 대해 만족하며, 또래 집단에서의 수

용도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4.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많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를 가질 비율이 높고, 인기가 적은 아동은 상호적 친구가 없을 비율이 높다. 그러나 친구가 없는 아동은 인기 집단에 서도 발견되며, 인기집단 아동이 모두 상호적 친구를 가진 것은 아니다.

## 참고 문헌

- 곽경신 (1988). 6, 9세 아동이 기대하는 우정의 상호유 사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현심 (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 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33-43.
- 신유림 (1997). 유아의 친구관계와 사회적 지위 및 놀이 행동과의 관련 연구. 아동학회지, 18(2), 2, 47-56.
- 윤미경 (1998). 아동의 또래수용과 우정관계의 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진 (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 이운옥 (1991). 유치원 아동의 인기도와 친구관계의 구분. 서원대논문집, 28, 85-103.
- 이은혜 · 고윤주 (인쇄중).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 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 이은혜 · 고윤주 (인쇄중). 대학생의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기능 및 친구관계망의 구조적 변 인간의 관계. 교육학 연구.
- 이주옥 (1985). 학령기 아동의 우정관계 개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연진 · 이은혜 (1994).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 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2(1), 119-131.
- 최용주 · 이재연 (1993).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4(1), 109-127.
- Bagwell, C. L., Newcomb, A. E.,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erndt, T. J. (1986). Children's comments about their friendship. In M. Perlmutter (Ed.), *Cognitive perspectives on children's soci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8(pp.189-21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erndt, T. J. (1989). Obtaining support from friend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308-331). New York: Wiley.
- Berndt, T. J. (1996). Exploring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on social development. In W. M. Bukowski, A. E.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 346-3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 A Neo-Sullivani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and B.

-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41-62). New York: Springer.
- Buhrmester, D., & Furman, W. (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Bukowski, W.,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 J. Berndt, & G. 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iring, C., & Lewis, M. (1989). The social networks of girls and boys from early through middle childhood. In D. Belle (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pp.119-150). NY: John Wiley & Sons.
- Furman, W. (1996). the measurement of friendship perceptions: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68-7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urman, W., & Buhrmester, D. (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 1016-1022.
- George, T. P., & Hartmann, D. P. (1996). Friendship networks of unpopular, average, and popular children. *Child Development, 67*, 2301-2316.
- Gilligan, C. (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9*, 365-378.
- Gottman, J. M. (1983). How children become friend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3), Serial No. 2011.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20-126.
- Hartup, W. W., & Stevens, N. (1997). Friendships and adaptation in the life course. *Psychological Bulletin, 121*(3), 355-370.
- Hartup, W. W., French, D. C., Laursen, B., Johnston, M. K., & Ogawa, J. R. (1993). Conflict and friendship relations in middle childhood: Behavior in a Closed-Field Situation. *Child Development, 64*(2), 445-454.
- Hobfoll, S. E., & Stokes, J. P. (1988). The process and mechanics of social support. In S.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Howes, C. (1983). Patterns of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54*, 1041-1053.
- Ladd, G. W., & Coleman, C. C. (1997). Children's classroom peer relationships and early school attitudes: Concurrent and longitudinal association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 51-66.
- Ladd, G. W., & Price, J. M.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endelson, M. J., & Aboud, F. E. (in press).

-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in late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McGill Friendship Questionnaires.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 Newcomb, A. F., & Bagwell, C. L. (1996). The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children's friendship rela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289-32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1932)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Vandell, D. L., & Hembree, S. E. (1994). Peer social status and friendship: Independent contributors to children's social and academic adjust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0, 461-477.
- Weiss, R. S. (1969). The fund of sociability. *Transaction*, 6, 36-43.
- Weiss, R. S. (1974).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s. In Z. Rubin (Ed.), *Doing unto others* (pp.17-26).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